

보도일시	2020. 6. 12.(금) 석간(온라인 6. 12. 10:50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20. 6. 11.(목) 14:00	담당부서	기후환경대응팀
담당과장	한우진(044-202-4511)	담당자	남경일 사무관(044-202-4512)

## 「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&D 추진전략('20~'24)」 발표

### - 미세먼지 원인규명 기초연구 강화 및 위성과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측정·예보 고도화 추진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6월 12일(금)에 「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&D 추진전략('20~'24)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.
  - 이번 전략은 지난 '19.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「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('20~'24)」의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,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실·근거와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  -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차례의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.

□ 「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&D 전략('20~'24)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전략 1. 원인규명 기초연구 강화 >

- 그간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배출 저감 기술개발 위주로 진행된 정부 R&D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,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원인규명 기초연구에 집중 투자한다.

※ 정부 미세먼지 R&D 투자액('16~'20) 약 5,500억원 중 배출 저감 분야 투자액은 3,330억원(59%), 원인규명 분야 투자액은 109억원(2%)

- 기존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에서 진행됐던 미세먼지의 생성 과정 규명 연구를 이어가고, 그 동안 투자가 미비했던 물리·화학적 특성과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현상 원인도 규명할 계획이다.
- 또한 우리나라 연구자 주도로 동북아 지역의 여러 국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고, 연구자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.
- 이와 같은 연구 수행을 위하여 올해 신규 사업인 '동북아-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'이 출범할 예정이다.

< 동북아-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 개요 >

- ◆ (사업기간/총 예산) '20년~'24년 / 458억원('20년 45억원)
  - ◆ (사업목적) 동북아 연구자간 국제협력연구를 통해 한국형 초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, 지역별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개발
  - ◆ (사업내용) 초미세먼지 입자의 물성연구, 고농도 현상규명, 국제협력 연구 강화 등을 위한 △현상규명, △중기예보, △중장기 전망, △지역 맞춤형 관리 등 4개 분야로 구성
  - ◆ (추진경과 및 향후계획) 사업단장 선정 공고(1.30~2.28) → 평가 및 심의(4~5월) → 사업단장 선정\*(6.2) → 세부과제 기획·선정(7월) → 연구 개시(8월 중)
- \* 배귀남(KIST / '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' 사업단장)

< 전략 2. 관리기반(측정, 예보, 배출량) 고도화 >

- 미세먼지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측정, 예보, 배출량 정보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&D가 뒷받침 되어야한다.
- 지상 측정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성공적으로 발사한 미세먼지 관측 위성 천리안 2B호와 항공기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위성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과 항공 관측 기법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.

- 또한,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을 활용하여 정부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연계한 3차원 미세먼지 공간분포측정 기술을 개발하고,
  - 위성·항공기·지상 등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데이터플랫폼 고도화, 인공지능 활용 예보 모델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.

< 시간대별 3차원 미세먼지 분포 시각화 연구(출처 :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연구보고서) >



- 마지막으로 위성으로 측정 한 미세먼지 농도를 통해 배출량을 추정하는 기법 등을 개발하여 기존의 국가 공인 배출량 자료를 보완하고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.

### < 전략 3. R&D 성과 분석 및 원천기술 개발 >

- 그간 추진해 온 미세먼지 R&D의 성과를 분석하여 R&D 공백 영역을 도출하고, 향후 신규 미세먼지 R&D 사업 기획에 활용하고,
  - R&D 성과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을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.

< R&D 성과 분류 체계(안) >



-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을 중심으로 배출 저감 및 인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,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사업 기획을 추진한다.
  - 또한 '출연연 미세먼지 R&D 협의체'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R&D 추진 과정 상의 병목 문제(Bottle Neck)를 해결하고, 연구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, 향후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.
-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 날 광주과학기술원(GIST)에 방문하여 「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&D 전략('20~'24)」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,
- 이후 미세먼지 연구 실험실에서 '고해상도 미세먼지 2차 생성 실시간 추적 장비' 등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 연구 과정을 직접 살펴보았다.

< GIST 현장방문 개요 >

- ◆ (목적) 「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&D 추진전략('20~'24)」 발표 및 전략 이행계획 논의, 미세먼지 원인규명 연구 현황 점검 등
- ◆ (일시/장소) '20.6.12(금) 10:50~12:20 / 광주과학기술원(GIST)
- ◆ (참석자)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, 미세먼지 R&D 사업단장(2개 사업단), KIST 청정대기센터장, 과기정통부·연구재단 담당자, 미세먼지 전문가 등 10여명

- 정병선 차관은 “미세먼지는 코로나19만큼이나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 중 하나”라고 하면서, “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과학기술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, 환경부·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부처·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 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경일 사무관(☎ 044-202-4512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방문 개요

- (목적) 「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&D 추진전략('20~'24)」 발표 및 전략 이행계획 논의, 미세먼지 원인규명 연구 현황 점검 등
- (일시/장소) '20.6.12(금) 10:50~12:20(90분) / 광주과학기술원(GIST)
- 참석자
  - (과기정통부) 제1차관, 기후환경대응팀장
  - (사업단) 배귀남 동북아-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장, 신동천 에너지·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단장
  - (연구·전문기관) 김진영 KIST 청정대기센터장, 이상협 한국연구재단 에너지·환경단장
  - (전문가) 이화여대 김용표 교수, GIST 박기홍 교수, GIST 송철한 교수, GIST 민경은 교수, 이일우 ETRI 에너지·환경ICT연구단장

□ 세부 일정(안)

시간(90')	내용
10:50~10:55(5')	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
10:55~11:45(50')	「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&D 추진전략('20~'24)」 발표 및 전략 이행계획 논의
11:45~11:50(5')	이동
11:50~12:15(25')	고해상도 미세먼지 2차 생성 실시간 추적 장비 등 미세먼지 측정 장비 시연
12:15~12:20(5')	마무리